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진로 계획 및 진로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천 혜 령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진로 계획 및 진로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종 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천 혜 령

천혜령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위원장 교육학박사 원 호 현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미 영 (인)

위 원 공 학 박 사 박 종 운 (인)

목 차

Abstract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해	7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교육	14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19
4. 진로의식에 대한 이해	21
5. 진로교육 만족도	24
6. 선행연구의 고찰	26
III. 연구 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측정 도구	29
3. 자료 분석	32
IV. 연구 결과 및 논의	33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	33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계획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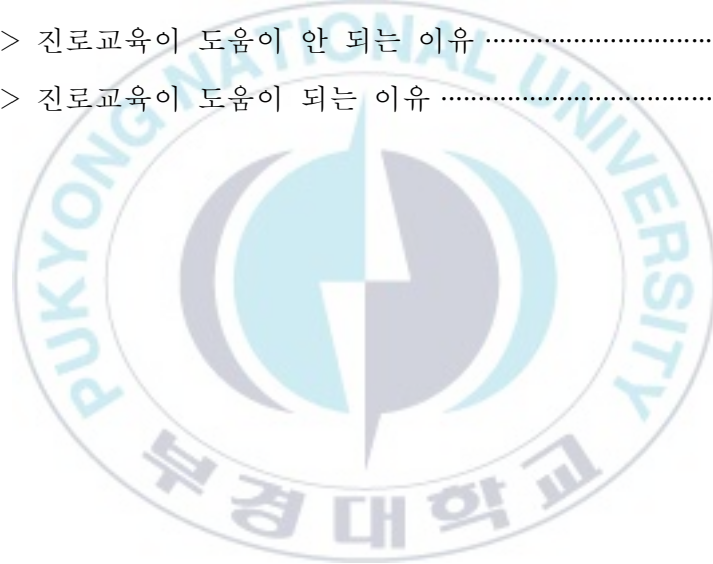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47
4.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빈도분석	54
5. 고등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58
 V. 결론	 61
 참고문헌	 64
 부록: 설문지	 68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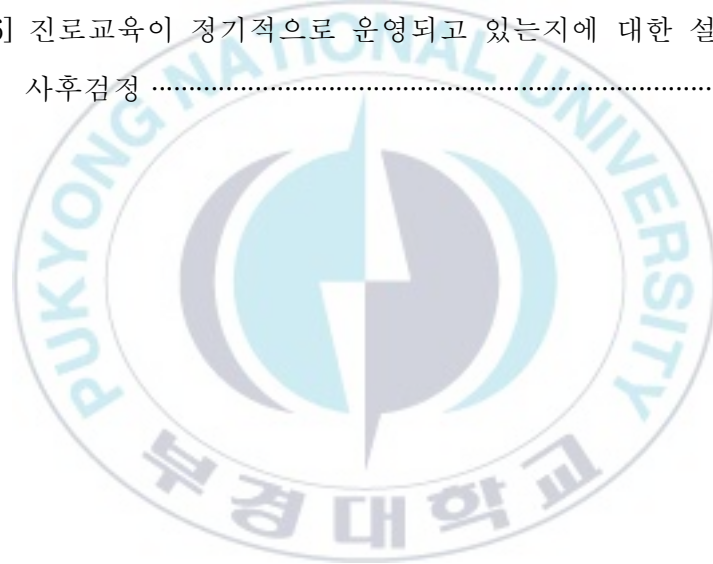
<표 II-1>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상의 특징	12
<표 II-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19
<표 II-3> 진로 결정의 요인	23
<표 III-1> 연구대상 및 설문지 배부, 회수 현황	28
<표 III-2>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30
<표 III-3> 설문지 구성	30
<표 IV-1>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33
<표 IV-2>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34
<표 IV-3>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35
<표 IV-4>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36
<표 IV-5>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37
<표 IV-6>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38
<표 IV-7>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1
<표 IV-8>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42
<표 IV-9>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3
<표 IV-10>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43
<표 IV-11>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5
<표 IV-12>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45
<표 IV-13>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7
<표 IV-14>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48
<표 IV-15>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9
<표 IV-16>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49

<표 IV-17>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51
<표 IV-18>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	51
<표 IV-19>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구체적 진로계획과 그 이유	54
<표 IV-20> 취업을 선택한 이유	55
<표 IV-21> 전공 분야로의 취직	55
<표 IV-22>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	56
<표 IV-23> 대학진학 시 대학 유형	56
<표 IV-24> 진로교육의 도움 여부	58
<표 IV-25> 진로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	59
<표 IV-26>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	60



그 립 목 차

[그림 IV-1] 자기파악 정도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39
[그림 IV-2]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39
[그림 IV-3] 진로에 대한 노력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40
[그림 IV-4] 진로목표 결정 여부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46
[그림 IV-5]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52
[그림 IV-6] 진로교육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53



A Study of the Job-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Consciousness,
Career Planning and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Hye-Ryeong Chun

Fisheries & Marine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difference career consciousness, career planning,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of the job-specialized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grade, gender, type of school.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in career consciousness of the job-specialized high school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type of school?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in career planning of the job-specialized high school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type of school? Third, What is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of the job-specialized high school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type of school?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bout 5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5 job-specialized high school. Measurement tool is career consciousness, career planning, and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grad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consciousnes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job-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most of career consciousness regardless of grade.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reer consciousness depending on gender and type of school. It turned out that girls are more aware of career consciousness than boys in gender. Tukey's test showed home economics students are more aware

than students in industrial, agricultural, and fishery as much as grasping their aptitude and quality. For consideration in selecting occupations, industrial and commercial students were more aware than fishery students. In effort for career, home economics students make more efforts than fishery and industrial students.

Second, grad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lanning.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job-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most of career planning regardless of grade.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lanning for career depending on the gender and type of school. It turned out that girls are more aware of career planning than boys in gender like career consciousness. Tukey's test showed home economics students are more aware than students in industrial whether the career goal is determined.

Third, grade and gender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job-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 most of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regardless of grade and gender.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depending on type of school. Tukey's test showed home economics students are more aware than students in industrial, agricultural, and commercial about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in schools. Whether the school regularly runs career education, home economics students were more aware than agricultural and commercial students.

Fourth, most students chose to find a job after graduation (48.6%) from a job-specialized high school and college education followed (23.0%). Most students who chose to find a job responded (39.4%) that 'they want to gain real world experience earlier.' On the other hand, those who chose to pursue college education mostly responded (41.6%) that they 'want to find better jobs.'

Fifth, In regards to the career education offered by their schools, 234 students were positive (60.5%) and 50 were negative (1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미래 사회의 직업 세계가 주목받아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직업 세계도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직업을 선택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평생직장, 평생직업이라는 말은 이제는 유효하지 못하며,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인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이 가능한 적응력이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 빠르게 적응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1960대 이후 산업화단계에서 우수한 기능 인력을 사회 전반에 양성, 공급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우수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졸업생들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내·외적인 부분이나 승진에 있어서 큰 차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화 사회의 발달로 고도화된 전문 기술인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대학 진학 욕구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여건 변화에 발맞추지 못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등의 질적인 변화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점차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적 위상이 저하되며, 정체성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는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고학력을 선호하는 취업 사정의 변화와 진학 욕구 증가라는 현실에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장기반 교육과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 진학률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4년에는 2002년 이래 처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44.6%)이 대학 진학률(37.9%)보다 높아졌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하지만 여전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35%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며, 여전히 취업과 진로를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은경(2007)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 소질, 적성, 능력,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적절한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의식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고 학생들 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양과 질을 높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행해야 하며, 졸업 후 사회로 나가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방향을 준비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교육으로, 그들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등을 이해하여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직업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람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정체감을 획득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해결하면 정체감 혼란(identity confusion)에 빠지게 되므로, 에릭슨(Erikson, 1968)은 이 시기를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이라 하였다. 장휘숙·최영임(2014)은 청소년기가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기는 유아기의 뇌의 변화만큼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호르몬의 분비, 화학적인 요소나 유전자의 내용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어 충동 조절이 어렵고 발달적으로도 혼미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집단도덕성을 이루며 계획성이 결여되고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 계획을 결정하는 것에도 힘이 든다(권영주 외, 2007; 정종진 2010).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를 원만하게 잘 겪게 된다면 자신의 진로와 목표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미성숙한 결정은 자신의 미래설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자신의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 없이 진로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가 진로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자기 신념, 즉 진로의식이다. 청

소년기는 이러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기로서 올바른 진로의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이 다양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제 진로 교육이나 진로지도는 단순한 개인 역량 개발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의 세계와 일의 세계, 즉 교육 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의 생성과 소멸, 이직·전직의 보편화 등 직업 세계와 노동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는 개인에게 있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일생 직업의 선택과 결정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될 것이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청소년에게 있어 개인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등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개인적 준비와 함께 학교를 통해 진로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진로전환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진로계획 실행과 직업 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진로계획,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학년, 성별, 학교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가 진로지도를 하거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진로 계획 및 진로 교육의 만족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은 학년, 성별, 학교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계획은 학년, 성별, 학교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년, 성별, 학교 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가.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1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로의식

진로의식이란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장차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의사 결정할 때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진학 및 취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 등을 포함, 총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생활을 관계 이해, 각 진로 추진에 다양한 기초기능, 학력, 기술 등의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 사회인으로 서 역할을 이해하고 사고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의식구조를 말한다.

다. 진로교육

개인이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각자의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에 적합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학습하는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해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먼저 고등학교의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열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계열 고등학교로 다양하게 분류되었지만, 그 후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고등학교 체제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정비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는 1996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후 구체적인 정책 설립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확대되었다. ‘특성화’의 의미를 ‘어떤 특정 분야의 특성화’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을 달라질 수 있다.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을 강조하며 제안한 새로운 고등학교의 형태가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이러한 정의는 현행과 같은 수동적이고 주입식 교육의 고등학교 형태로는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흥미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도

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달용(2007)은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정 전문분야의 소질, 적성, 관심이 있어 이른 시기에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라 정의하였다.

즉, 위의 개념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보통교과에는 관심과 소질이 없어 성적이 좋지 않지만, 특정 전문분야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며, 특정산업과 연관된 직업군에 초점을 두어 그 분야의 종사자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직업적 교양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분류

(1) 공업계열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은 공업 분야의 기능·기술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기능·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은 공업 분야의 기초 지식과 산업체 현장 실무 기능·기술 및 태도를 길러 취업, 창업 등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평생학습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여, 직업의 전 생애에 걸쳐 동일 분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진다.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공업의 각 분야에서 기능·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산업체 현장 실무 기능·기술을 습득하여 지식기반 사회 및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창의적으로 대처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첫째, 공업 분야의 기초 원리와 기능·기술을 습득하여 산업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둘째, 공업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현장의 실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공업 관련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려는 평생학습 태도를 길러 개인의 직업 생애를 개척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2) 농업계열

현재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농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농업 및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무근(1975)은 농업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교양 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과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으로 나누었다. 교양 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은 농업에 관한 교양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부업의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정신과 신체 단련, 일상생활에서 농업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가 되게 하도록 농업에 관하여 학습하는 것이고,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은 농업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 직종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3) 상업 정보계열

상업 정보계열 고등학교는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준비 교육기관이다. 상업 정보계열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기업경영을 담당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업 정보계열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교과로서의 상업 교과는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능력 있는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구성한다. 이 상업 정보계열 고등학교의 명칭도 기존의 상업고등학교뿐 아니라 정보산업고등학교, 전산디자인고등학교, 경영정보고등학교, 인터넷 고등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4) 수산·해운계열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수산·해운 분야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 해양 시대에 새롭게 전개될 미래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수산·해운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수산 분야의 교육 내용은 생산 분야, 유통과 판매 분야, 수산 가공 및 냉동 분야, 해양 토목 분야, 해양 환경 분야, 선박 운항 분야 및 해양 산업 분야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운 분야는 해상에서의 화물 및 승객의 운송 수단인 선박의 항해, 운용 및 화물의 운송에 관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선박 기관, 통신 실무, 해사 법규 등 해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산·해운 교육은 종래의 수산·해

운 분야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완성 교육 측면과 경제적 수준 향상, 국민의 높은 교육열 및 고학력 사회로의 도래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상급 학교 진학 및 수산·해운 산업 분야 사회 교육 기회 제공 등 계속 교육 측면의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닌다.

(5) 가사 실업계열

가사 실업계열 고등학교는 산업사회와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생활시간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목표로는 가사·실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특징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졸업 후에 관련 분야의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교 교과목의 구성도 대부분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옥준필(2000)의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따른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삶과 일의 세계에 실재를 적용할 수 있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여섯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소규모의 학교 및 학급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곱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송달용(2007)은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상의 특징을 교육 목적 외 10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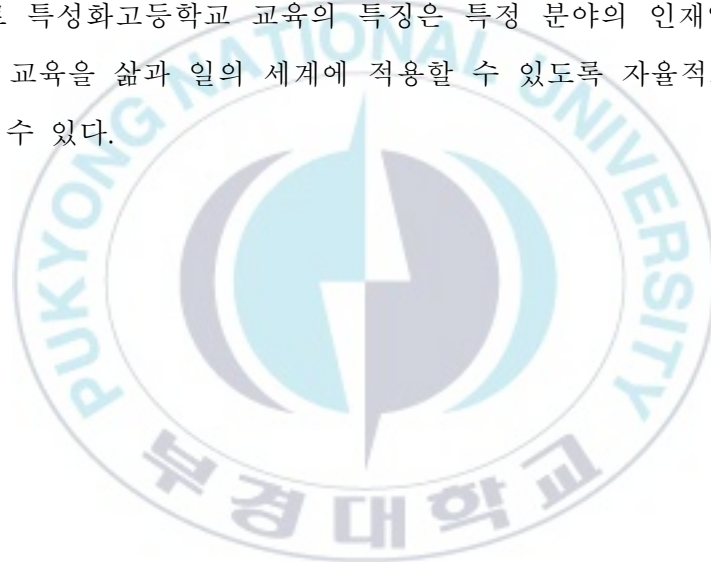
<표 Ⅱ-1>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상의 특징

구분	내용
교육 목적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
교육 내용	산업계의 수요와 학생의 요구가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기초 전문 교육
학생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
교사	중등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교사, 해당 분야 산학 겸임교사
학생의 진로	관련 분야의 취업 및 대학진학
학교 유형	단일형 및 복합형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규모	소규모 학교
지정권자	시·도 교육감

학생 모집	전기에 선발, 전국단위 모집 가능
학생 선발 방법	실기 고사, 적성검사, 면접 등으로 선발하되 필기 고사는 불가하며, 해당 분야의 입상 경력 및 자격증 등에 가중치 부여 가능
전·편입학	학교 간 전학 가능

출처 : 송달용(2007) 특성화고등학교 평가 준거 개발

그러므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특징은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기초 전문 교육을 삶과 일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가. 진로교육의 필요성

청소년기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과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타협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선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과 취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 취업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연마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진학과 취업을 놓고 진로 결정에 대하여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부족으로 직업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취업으로의 진로지도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부족한 부분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전문화와 분업화가 심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현명한 진로선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 탐색 및 준비기라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개인적 측면

현대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된 자신의 소질, 적성, 능력, 흥미 등에 대한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우선의 목표를 둔다. 더불어 진로교육은 직

업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탐색과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건전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을 통해 학벌 지상주의와 직업의 귀천 의식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만의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회적 측면

진로교육은 산업 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일과 직업의 세계가 장차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상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인력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재학 동안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이 학교 졸업 이후 성인 직업 생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진로개발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초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고 직업적 변화에 능동적인 직업인이라 하여도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일에 임하는 바른 태도와 습관,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직업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의를 달성할 수 없다.

21세기는 직업의 구조가 다양하고, 한 개인이 일생 여러 차례에 걸쳐 직업을 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기관은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력 위주의 사회보다는 능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야 하며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비해 취업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진로교육의 방법

(1) 진학지도

요즘 들어,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률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학지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진학지도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 가능한 성적 수준과 진로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대학 졸업 후에도 일정 숫자는 구조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 등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권미경, 2006).

진학지도에 있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직업 세계의 탐색이다. 왜냐하면, 진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업 세계의 탐색은 직업의 종류, 직업군 등의 정보를 수집·검토하는 일인데,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는 직업군의 이해와 근무조건, 복지후생, 보수, 승진 관계, 장래에 대한 희망,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수준 등에 관한 것이다(배준형, 2012).

(2) 취업지도

취업지도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문제를 전체 구조 속에서 갈등 없이 내면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직업에 관한 정보란 직업군의 이해와 근무조건, 학력, 보수, 복지혜택, 승진, 장래에 대한 전망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진로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도방법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취업지도는 먼저 직업탐색, 직업준비, 취업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직업탐색은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과 그 직업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즉 노동시장의 현황,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 취업 및 근로조건, 직무의 내용, 장래의 전망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말한다(권미경, 2006).

다. 진로교육의 목표

진로교육의 기본 목표는 현대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이상적인 학교 급별 진로교육 목표는 초등학교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중학교에서의 다양한 직업 세계 탐색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중학교까지 형성된 진로개발역량을 기반으로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희망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탐색 및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급별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형식의 학습이 필요로 한다.

옥준필(2000)이 제시한 진로교육의 일반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 인성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순응하도록 한다. 셋째, 학생 개인별로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배경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르는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과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넷째,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나 태도, 즉 직업윤리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적·환경적·직업적 요인을 고려하여 능력에 맞는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그리고 기술 등을 습득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임언 외(2008)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으며, 진로 탐색 과정에서 심리 검사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진로교육 중요도 인식과 학기별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진로와 직업’의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의 양질의 차이는 클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목표를 ‘중학교까지 형성된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하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 후 진로 경로는 ‘진학률 증가, 취업률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2011년 이후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진학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마침내 취업자의 수가 진학자의 수를 역전하였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2년 이후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휘인·김현철(2015)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증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들어맞는 긍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표Ⅱ-2>는 최근 연도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Ⅱ-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연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	114,690	69,944	61.0	29,756	25.9	14,990
2012	108,950	54,484	50.0	41,791	38.4	12,675
2013	105,907	44,152	41.7	42,900	40.5	18,855
2014	106,521	40,353	37.9	47,539	44.6	18,629
2015	101,884	36,738	36.1	46,800	45.9	18,346
2016	101,256	35,473	35.0	46,756	46.2	19,02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이 표에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진로의식에 대한 이해

가. 진로의식의 개념

Crites & Savickas(1996)는 진로의식을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Tolbert(1980)는 진로란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이며, 의식이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의 주관적인 반응으로서 자신의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심리적 내용이라고 하였다. 또한 Hoyt(1987)는 진로의식을 자아와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양자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개념화하였다. 강무섭·박영숙(1984)은 진로의식이란 직업적인 자아 주체성이 형성됨으로써 자신의 모든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거나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성숙(1998)은 진로의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직업관의 발달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활동 관계에 대한 이해, 각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기능, 학력, 기술 등에 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 사회인의 역할을 개발하고 이해하고 사고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진로의식, 발달의 이론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진로교육에 도입한 것으로서, 진로발달은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는 견해다. 이와 같은 발달적 접근의 기본논리는 인간의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의식과 지식, 태도 및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고 보고 있다(이보미, 2006). 또한, 진로의식은 자

아의 이해와 직업 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하고 정의된다(고향자, 1993; 김봉환, 1997).

이러한 진로의식의 발달은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성숙해진다는 개념으로 일에 대해 배우고 직업을 준하고 취업하고 승진하는 등의 인간의 총체적인 발달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진로의식 결정요인

학생들이 진로를 더욱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로계획은 생애계획 또는 인생의 설계로서 누구나 제 나름의 계획이 필요하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일생의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정근(1982)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능력 요인, 직업적 흥미 요인, 인성 요인, 학력 요인, 가정 배경 요인, 경제상태 요인, 신체적 조건 요인, 학교 요인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강무섭·박영숙(1984)은 진로 결정요인을 진로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진로발달, 직업 세계, 교육 및 훈련, 성장 과정의 네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정은 환경요인으로써 가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기술공학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 결정요인을 개인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교육 체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II-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3> 진로 결정의 요인

구분	진로 결정요인
개인적 요인	1. 내재적 요인 나이, 성,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2. 외재적 요인 가정배경,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진로관, 가족 구성, 종교
사회·경제적 요인	1. 산업 구조의 변화 2. 산업기술의 혁신 3. 학생 인구의 증가 4. 사회의 직업 가치관
교육 체계적 요인	1. 학교 배경 학교의 중점정책, 동료집단의 성격 2. 교육정책

출처 : 강무섭·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분석

5.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들어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진로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손유미(2001)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직업 관련 적성·흥미검사의 실시, 진학 담당교사나 직업상담원에 의한 전문적인 진로상담,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에의 진로 활동, 다양한 교과를 통한 직업안내,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설치 및 운영, 진로상담 전문교사의 육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미나 개최 등 질적인 면에서도 급속하게 발전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로교육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교육 만족도는 진로교육의 개념과 연관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결정한 후에 그 진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자신이 설정한 기대와 비교하여 그 활동들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해 Oliver(1988)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의 긍정 정도라고 하였으며, Astin(1994)은 학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며, 조사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 보면 진로교육 만족도는 진로선택 및 진로 결정 과정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진로교육 때문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한계, 산업체의 협력 부

족,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정태화, 2003).

위 선행연구를 요약해 볼 때, 대부분 학생이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교사뿐 아니라 사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선행연구의 고찰

그동안 전문계열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인식 및 진로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권미경(2006)은 전문계열 고등학교 교육은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교과 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진로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참여의식과 개개인의 적성 및 소질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형성하여 학습 또는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소예(2009)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나타났으나 진로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선택한 진로는 대부분 대학진학이었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학습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로 결정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당은 믿은 갖고 있다고 하였다.

황민영(2009)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진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로교육을 받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체험과 실천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내의 기업체가 연계되어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다양한 실습경험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더욱더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학습의 다양성과 적응성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배준형(2012)은 진로교육을 시행할 때 진학 동기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진학 동기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적절한 진로교육을 시행하여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사의 전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문선(2014)은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 적성, 특성이나 흥미를 반영하여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한 진로정보의 제공을 원하고 있으며, 취업 및 진학의 문제에 있어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진로지도교사의 전문성 재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활발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르게 다양한 진로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의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내용을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 현황과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계열별로(공업, 농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 실업) 각 3곳씩, 총 15곳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교의 진로상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총 500부의 설문지를 택배 및 방문을 통하여 배부하였다. 그중 471부를 회수하였으며 무응답 및 다중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7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 현황은 아래 <표 Ⅲ-1>과 같다. 표에서 학교명은 수도권, 호남, 영남 순이다.

<표 Ⅲ-1> 연구대상 및 설문지 배부, 회수 현황

계열	학교명	배부	회수	회수율	유효 수
공업	A고등학교	30	29	96.7	23
	B고등학교	30	26	86.7	21
	C고등학교	40	35	87.5	31
농업	A고등학교	40	40	100	35
	B고등학교	30	30	100	26
	C고등학교	30	30	100	27

상업	A고등학교	30	30	100	21
	B고등학교	30	30	100	28
	C고등학교	30	26	86.7	21
수산해운업	A고등학교	40	38	95	32
	B고등학교	40	38	95	27
	C고등학교	30	30	100	18
가사 실업	A고등학교	40	35	87.5	32
	B고등학교	30	24	80	19
	C고등학교	30	30	100	26
계		500	471	94.2	387

2. 측정 도구

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인식, 진로계획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채수영(2006), 황민영(2009), 배준형(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단어, 문맥을 수정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를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몇 군데 수정절차를 거쳐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차 설문지 문항의 신뢰

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진로의식	4, 5, 6, 7, 8	5	.73
진로계획	9, 14, 15	3	.81
진로교육 만족도	16, 19, 20, 21	4	.79

본 연구문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 하위요인은 진로의식과 진로계획 및 진로교육 만족도 등이다. 진로의식을 묻는 문항은 총 5개 항목이고, 진로계획을 묻는 문항은 총 3개, 진로교육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총 4개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자세한 문항과 척도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3>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기초 항목	학년	1	3
	성별	2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3	
진로의식	자기파악 정도	4	5
	직업선택 고려사항	5	
	진로에 대한 노력	6	
	진로정보 습득경로	7	
	진로선택 시 어려움	8	

	진로계획	9	
	취업선택 이유	10	
	관련 분야 취업 여부	11	
진로계획	대학진학선택 이유	12	7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선택	13	
	진로계획 상담자	14	
	진로목표 결정 여부	15	
	진로교육의 도움 여부	16	
	진로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	17	
진로교육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	18	6
만족도	진로교육의 만족도	19	
	진로교육의 정기적인 지도 여부	20	
	진로교육 내용	21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05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진로의식, 진로계획, 진로교육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 성별, 학교계열에 따라 진로의식, 진로계획 및 진로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MANOVA)을 각기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Tukey의 사후검정을 하였다. 또한,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 의식

본 연구에서 학년, 성별,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의식을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년에 따른 진로 의식

학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과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1>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 의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1학년(n=71)		2학년(n=162)		3학년(n=154)	
		M	SD	M	SD	M	SD
진로 의식	자기파악 정도	3.338	.955	3.346	.986	3.526	.937
	직업선택 고려사항	2.155	.920	2.364	1.008	2.448	1.221
	진로에 대한 노력	3.225	.7560	3.302	.913	3.383	.965
	진로정보 습득경로	2.056	1.040	2.080	1.015	2.195	1.172
	진로선택 시 어려움	2.606	1.325	2.599	1.166	2.331	1.103
	전체	2.676	.510	2.738	.551	2.777	.565

<표 IV-2>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인식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진로인식(n=387)	MANOVA				ANOVA		
	Wilks'						
	λ	F	df	p	F	df	p
전체	.957	1.669	10, 760	.084			
자기파악 정도					1.674	2, 384	.189
직업선택 고려사항					1.781	2, 384	.170
진로에 대한 노력					.787	2, 384	.456
진로정보 습득경로					.597	2, 384	.551
진로선택 시 어려움					2.453	2, 384	.087

<표 IV-2>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인식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957(F=1.669 \text{ } df=10, 760; p=.084)$ 로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인식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년에 따른 진로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문선(2014)과 일반계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순형(2007),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수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진로인식에 대한 학년별 인식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선택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고, 부모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진로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못 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은 학업성취나 시험점수에 중점을 둔 교과교육이 대부분이고 수능 위주와 대학진학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진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며, 진로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3>과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3>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남(n=249)		여(n=138)	
		M	SD	M	SD
진로 의식	자기파악 정도	3.325	.948	3.580	.973
	직업선택 고려사항	2.325	.989	2.420	1.243
	진로에 대한 노력	3.193	.917	3.551	.846
	진로정보 습득경로	2.112	1.037	2.138	1.166
	진로선택 시 어려움	2.430	1.130	2.609	1.252
	전체	2.677	.529	2.859	.568

<표 IV-4>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MANOVA				ANOVA			$\alpha=.05$
	Wilks'							
진로의식(n=387)	λ	F	df	p	F	df	p	
전체	.959	3.275	5, 381	.007				
자기파악 정도					6.281	1, 385	.013	남<여
직업선택 고려사항					.679	1, 385	.410	
진로에 대한 노력					14.272	1, 385	.000	남<여
진로정보 습득경로					.048	1, 385	.827	
진로선택 시 어려움					2.059	1, 385	.152	

<표 IV-4>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959(F=3.275 \text{ df}=5, 381; p=.007)$ 로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남학생들의 점수보다 더 높다.

진로의식 하위 요인 중 자기파악 정도($F=6.281 \text{ df}=1, 385; p=.013$)와 진로에 대한 노력($F=14.272 \text{ df}=1, 385;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기파악 정도와 진로에 대한 노력 모두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진로의식이 더 높은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수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편무생(2015)의 연구와는 상반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하여 더 잘 인식하고 있고, 진로에 대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 탐색 및 진로선택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태

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다. 학교계열에 따른 진로의식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5>와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5>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공(n=75)		농(n=89)		상(n=70)		수산(n=76)		가사(n=77)	
		M	SD	M	SD	M	SD	M	SD	M	SD
진로 의식	자기파악 정도	3.213	.934	3.326	.974	3.500	1.046	3.263	.854	3.792	.908
	직업 선택 고려사항	2.613	1.051	2.326	1.074	2.614	1.195	2.118	.879	2.156	1.136
	진로에 대한 노력	3.000	.854	3.416	.863	3.400	.998	3.158	.849	3.610	.876
	진로정보 습득경로	1.907	.888	1.921	1.079	2.286	1.143	2.171	.943	2.364	1.266
	진로선택 시 어려움	2.333	1.069	2.438	1.260	2.457	1.125	2.539	.171	2.701	1.225
	전 체	2.613	.517	2.685	.597	2.851	.550	2.650	.468	2.925	.544

<표 IV-6>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MANOVA				ANOVA		
	Wilks' λ	F	df	p	F	df	p
진로의식(n=387)							
전체	.863	2.844	20, 1254	.000			
자기파악 정도					4.752	4, 382	.001
직업선택 고려사항					3.726	4, 382	.005
진로에 대한 노력					5.534	4, 382	.000
진로정보 습득경로					2.957	4, 382	.020
진로선택 시 어려움					1.042	4, 382	.385

<표 IV-6>에 의하면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의식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863(F=2.844 \text{ } df=20, 1254; p=.000)$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사 실업계열 학생의 진로의식이 가장 높고, 상업, 농업, 수산업, 공업계열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진로의식의 하위요인 중 자기파악 정도($F=4.752 \text{ } df=4, 382; p=.001$), 직업선택 고려사항($F=3.726 \text{ } df=4, 382; p=.005$), 진로에 대한 노력($F=5.534 \text{ } df=4, 382; p=.000$), 진로정보 습득경로($F=2.957 \text{ } df=4, 382; p=.02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점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열 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한 결과는 [그림 IV-1], [그림 IV-2], [그림 IV-3]과 같다.

	계	열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실업
평균							
3.213	공	업					공=공업
3.326	농	업					농=농업
3.500	상	업					상=상업
3.263	수	산	업				수산=수산
3.792	가사	실업	*	*		*	가사=가사

[그림 IV-1] 자기파악 정도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그림 IV-1]에서 보면, 가사 실업과 공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농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수산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사 실업의 점수 공업, 농업, 수산업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가사 실업계열 학생들이 공업, 농업, 수산업 계열 학생들보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열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실업
평균							
2.613	공	업					공=공업
2.326	농	업					농=농업
2.614	상	업					상=상업
2.118	수	산	업	*	*		수산=수산
2.156	가사	실업					가사=가사

[그림 IV-2]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그림 IV-2]에서 보면, 공업과 수산업 점수 간, 상업과 수산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공업의 점수가 수산업 점수보다 더 높고, 또 상업의 점수가 수산업 점수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공업과 상업계열 학생의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점수가 수산업 계열 학생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과 상업계열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진로선택 시 가장 큰 고민으로 선택했지만, 수산업 계열 학생들은 미래설계에 대해 자신감 부족을 가장 큰 고민으로 선택했다.

	계	열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실업
평균							
3.000	공	업					공=공업
3.416	농	업	*				농=농업
3.400	상	업					상=상업
3.158	수	산					수산=수산
3.610	가사	실업	*			*	가사=가사

[그림 IV-3] 진로에 대한 노력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그림 IV-3]에서 보면, 농업과 공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공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수산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농업과 가사 실업의 점수는 공업의 점수보다 더 높고, 가사 실업의 점수는 수산업의 점수보다 더 높다. 따라서 농업과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은 공업계열의 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은 수산업 계열의 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 학생들의 진로의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상업, 농업, 수산업, 공업계열 학생들과 비교하면 진로의식에 대해 인식을 더 높게 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사 실업계열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학생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결과와 유사한 보고를 나타냈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계획

본 연구에서 학년, 성별,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계획을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년에 따른 진로계획

학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계획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7>과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7>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1학년(n=71)		2학년(n=162)		3학년(n=154)	
		M	SD	M	SD	M	SD
진로 계획	진로계획	1.930	1.376	2.290	1.535	1.968	1.206
	진로계획 상담자	2.338	1.319	2.432	1.422	2.519	1.368
	진로목표 결정 여부	3.634	.989	3.568	1.050	3.779	.895
전체		2.634	.746	2.763	.733	2.755	.668

<표 IV-8>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MANOVA				ANOVA		
	Wilks'						
진로계획(n=387)	λ	F	df	p	F	df	p
전체	.977	1.501	6, 764	.175			
진로계획					2.773	2, 384	.064
진로계획 상담자					.441	2, 384	.644
진로목표 결정 여부					1.877	2, 384	.154

<표 IV-8>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진로계획은 하위요인 모두에서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계획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년에 따른 진로계획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문선(2014)과 일반계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순형(2007),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수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나. 성별에 따른 진로계획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계획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9>와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9>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남(n=249)		여(n=138)	
		M	SD	M	SD
진로 계획	진로계획	2.052	1.426	2.174	1.323
	진로계획 상담자	2.454	1.338	2.442	1.460
	진로목표 결정 여부	3.546	.987	3.877	.939
	전체	2.684	.700	2.831	.720

<표 IV-10>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MANOVA				ANOVA			
	Wilks'							
진로계획(n=387)	λ	F	df	p	F	df	p	$\alpha=.05$
전체	.969	4.100	3, 383	.007				
진로계획					.680	1, 385	.410	
진로계획 상담자					.006	1, 385	.936	
진로목표 결정 여부					10.305	1, 385	.001	남<여

<표 IV-10>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969(F=4.100 \text{ } df=3, 3831; p=.007)$ 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학생들의 진로계획이 남학생들의 점수보다 더 높다.

진로계획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결정 여부($F=6.281 \text{ } df=1, 385; p=.01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의 진로목표 결정 여부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진로계획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수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을 알 수 있다.



다. 학교계열에 따른 진로계획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계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1>과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1>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공(n=75)		농(n=89)		상(n=70)		수산(n=76)		가사(n=77)	
		M	SD	M	SD	M	SD	M	SD	M	SD
진로 계획	진로계획	2.147	1.477	2.090	1.249	2.229	1.543	2.026	1.531	2.000	1.170
	진로계획 상담자	2.427	1.275	2.270	1.428	2.371	1.395	2.342	1.291	2.857	1.448
	진로목표 결정 여부	3.360	.967	3.697	.897	3.614	.982	3.618	1.032	4.013	.952
	전체	2.644	.709	2.685	.650	2.738	.621	2.662	.784	2.957	.748

<표 IV-12>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계획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MANOVA				ANOVA		
	Wilks'						
진로계획(n=387)	λ	F	df	p	F	df	p
전체	.934	2.188	12, 1005	.011			
진로계획					.322	4, 382	.863
진로계획 상담자					2.261	4, 382	.062
진로목표 결정 여부					4.494	4, 382	.001

<표 IV-12>에 의하면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계획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934(F=2.188 \text{ } df=12, 1002; p=.011)$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진로계획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결정 여부($F=4.494 \text{ } df=4, 38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점수에 대해 Tukey 사후검정을 한 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계	열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실업
평균							
3.360	공	업					공=공업
3.697	농	업					농=농업
3.614	상	업					상=상업
3.618	수	산	업				수산=수산
4.013	가	사	실업	*			가사=가사

[그림 IV-4] 진로목표 결정 여부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그림 IV-4]에서 보면, 가사 실업과 공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가사 실업의 점수는 공업의 점수보다 더 높다. 따라서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은 공업계열의 학생들보다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계획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가사 실업계열에는 여학생이, 공업계열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년, 성별,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학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3>과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3>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1학년(n=71)		2학년(n=162)		3학년(n=154)	
		M	SD	M	SD	M	SD
진로 교육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3.479	.651	3.364	.794	3.266	.886
	정기적인 지도 여부	3.225	.659	3.383	.850	3.357	.905
	진로교육 내용	2.211	1.308	2.173	1.302	2.006	1.301
	전체	2.972	.624	2.973	.661	2.877	.715

<표 IV-14> 학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종다변량분석 결과

진로교육 만족도 (n=387)	MANOVA				ANOVA		
	Wilks'						
	λ	F	df	p	F	df	p
전체	.961	2.562	6, 764	.018			
진로교육 만족도					1.747	2, 384	.176
정기적인 지도 여부					.896	2, 384	.409
진로교육 내용					.887	2, 384	.413

<표 IV-14>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진로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문선(2014)과,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수영(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공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이수(2010)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교육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

나. 성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5>와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5>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남(n=249)		여(n=138)	
		M	SD	M	SD
진로	진로교육 만족도	3.325	.849	3.384	.738
교육	정기적인 지도 여부	3.321	.862	3.384	.804
만족도	진로교육 내용	2.124	1.297	2.094	1.317
	전체	2.924	.680	2.954	.673

<표 IV-16>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진로교육 만족도 (n=387)	MANOVA				ANOVA			
	Wilks'							
	λ	F	df	p	F	df	p	$\alpha=.05$
전체	.998	.211	3, 383	.889				
진로교육 만족도					.466	1, 385	.495	
정기적인 지도 여부					.494	1, 385	.483	
진로교육 내용					.048	1, 385	.827	

<표 IV-16>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수영(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공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이수(201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진로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



다. 학교계열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7>과 같고, 이에 대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7>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설문내용	공(n=75)		농(n=89)		상(n=70)		수산(n=76)		가사(n=77)	
		M	SD	M	SD	M	SD	M	SD	M	SD
진로 교육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3.280	.831	3.146	.762	3.214	.832	3.474	.791	3.636	.759
	정기적인 지도 여부	3.427	.903	3.101	.724	3.257	.863	3.329	.823	3.636	.826
	진로교육 내용	2.067	1.359	2.034	1.229	2.014	1.313	2.197	1.233	2.260	1.399
	전체	2.924	.739	2.760	.568	2.829	.656	3.000	.646	3.177	.712

<표 IV-18>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점수의 중다변량분석 결과

진로교육 만족도 (n=387)	MANOVA				ANOVA		
	Wilks'						
	λ	F	df	p	F	df	p
전체	.922	2.597	12, 1005	.002			
진로교육 만족도					5.089	4, 382	.001
정기적인 지도 여부					4.727	4, 382	.001
진로교육 내용					.528	4, 382	.715

<표 IV-18>에 의하면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922(F=2.597 \text{ } df=12, 1005; p=.002)$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진로교육 만족도($F=4.494 \text{ } df=4, 382; p=.001$)와 정기적인 지도 여부($F=4.727 \text{ } df=4, 38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점수에 대해 Tukey 사후검정을 한 결과는 [그림 IV-5], [그림 IV-6]과 같다.

	계	열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실업
평균							
3.280	공	업					공=공업
3.146	농	업					농=농업
3.214	상	업					상=상업
3.474	수	산					수산=수산
3.636	가사	실업	*	*	*		가사=가사

[그림 IV-5]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그림 IV-5]에서 보면, 가사 실업과 공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농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상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사 실업의 점수는 공업, 농업, 상업의 점수보다 더 높다. 따라서 가사 실업 계열의 학생들은 공업, 농업, 상업 계열의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진로교육에 대해 더 높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	열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실업
평균							
3.427	공	업					공=공업
3.101	농	업					농=농업
3.257	상	업					상=상업
3.329	수	산	업				수산=수산
3.636	가사	실업		*	*		가사=가사

[그림 IV-6] 진로교육의 정기적 운영에 대한 설문점수의 사후검정

[그림 IV-6]에서 보면, 가사 실업과 농업 점수 간, 가사 실업과 상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사 실업의 점수는 농업, 상업의 점수보다 더 높다. 따라서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은 농업, 상업계열의 학생들보다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지도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계열 학생들과 비교하면 진로교육에 대해 더 높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빈도분석

고등학교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계획과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IV-19>와 같다.

<표 IV-19>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구체적 진로계획과 그 이유

구분	f	%
취업	188	48.6
대학진학	89	23.0
취업과 진학 병행	48	12.4
창업	9	2.3
미결정	53	13.7
계	387	100

‘취업’을 선택한 학생이 188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진학’ 89명(23.0%), ‘미결정’ 53명(13.7%), ‘취업과 진학 병행’ 48명(12.4%), ‘창업’ 9명(2.3%) 순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을 선택한 18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취직할 때 전공 분야로 취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의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IV-20>, <표 IV-21>과 같다.

<표 IV-20> 취업을 선택한 이유

구분	f	%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하여	74	39.4
진학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38	20.2
가정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15	8.0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서	36	19.1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25	13.3
계	188	100

39.4%의 학생들은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하여’, 38%의 학생들은 ‘진학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9.1%의 학생들은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서’, 13.3%의 학생들은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8%의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1> 전공 분야로의 취직

구분	f	%
반드시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겠다	48	25.5
전공과 공통요소가 있는 직종에 취업하겠다	63	33.5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하겠다	41	21.8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른 분야에 취업하겠다	28	14.9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기술을 익힌 후 창업하겠다	8	4.3
계	188	100

33.5%의 학생들은 ‘전공과 공통요소가 있는 직종에 취업하겠다’, 25.5%의 학생들은 ‘반드시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겠다’, 21.8%의 학생들은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하겠다’, 14.0%의 학생들은 ‘전성과 흥미에 맞는 다른 분야에 취업하겠다’ 4.3%의 학생들은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기술을 익힌 후 창업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진학’을 선택한 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진학 시 대학 유형에 대한 문항의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IV-22>, <표 IV-23>과 같다.

<표 IV-22>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

구분	f	%
전공 분야의 심화 교육을 받기 위하여	29	32.6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37	41.6
부모님의 권유와 기대를 따르기 위하여	8	9.0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6	6.7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9	10.1
계	89	100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89명 중 37명(41.6%)의 학생들은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29명(32.6%)의 학생들은 ‘전공 분야의 심화 교육을 받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로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부모님의 권유와 기대를 따르기 위하여’,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를 각 9명(10.1%), 8명(9.0%), 6명(6.7%)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표 IV-23> 대학진학 시 대학 유형

구분	f	%
4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	60	67.4
4년제 대학 비전공 관련 학과	8	9.0
2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	14	15.7
2년제 대학 비전공 관련 학과	5	5.6
사이버대학 전공 관련 학과	2	2.3
계	89	100

대학진학 시 어떤 유형의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 대해 67.4%의 학생들은 '4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 15.7%의 학생들은 '2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 9.0%의 학생들은 '4년제 대학 비전공 관련 학과', 5.6%의 학생들은 '2년제 대학 비전공 관련 학과', 2.3%의 학생들은 '사이버대학 전공 관련 학과'라고 응답하였다. 즉, 83.1%의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 관련 학과'에 진학하겠다고 응답하였다.



5.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도움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의 도움 여부와 그 이유의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IV-24>와 같다.

<표 IV-24> 진로교육의 도움 여부(n=387)

구분	f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3.4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	9.6
차이가 없다	103	26.6
조금 도움이 된다	183	47.3
매우 도움이 된다	51	13.2
계	387	100

47.3%의 학생들은 ‘조금 도움이 된다’, 26.6%의 학생들은 ‘차이가 없다’, 13.2%의 학생들은 ‘매우 도움이 된다’, 9.6%의 학생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3.4%의 학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긍정적인 응답은 234명(60.5%), 부정적인 응답은 50명(13.0%)이었다.

진로교육 도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문항의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진로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n=50)

구분	f	%
나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시간 낭비인 것 같다	7	14.0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교육만 시행되었다	22	44.0
초빙 강사나 졸업생들은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8	16.0
학교보다 학원이나 선배들에게 듣는 정보가 더 유용하다	4	8.0
학교 선생님이 하는 진로교육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9	18.0
계	50	100

부정적인 응답을 한 50명 중 22명(44.0%)은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교육만 시행되었다’, 9명(18%)은 ‘학교 선생님이 하는 진로교육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8명(16.0%)은 ‘초빙 강사나 졸업생들은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7명(14.0%)은 ‘나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시간 낭비인 것 같다’, 4명(8.0%)은 ‘학교보다 학원이나 선배들에게 듣는 정보가 더 유용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2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문항의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n=234)

구분	f	%
내 소질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29	12.4
다양한 강연 및 상담을 통해 나의 진로가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27	11.5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26	53.9
진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51	21.8
창업할 자신이 생겼다	1	0.4
계	234	100

긍정적인 응답을 한 234명의 중 53.9%의 학생들은 ‘취업한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1.8%의 학생들은 ‘진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2.4%의 학생들은 ‘내 소질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11.5%의 학생들은 ‘다양한 강연 및 상담을 통해 나의 진로가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0.4%의 학생은 ‘창업을 할 자신이 생겼다’라고 응답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 성별, 학교계열에 따른 진로 의식, 진로계획 및 진로교육 만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은 진로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진로의식에 대해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로의식은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진로의식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파악 정도에서는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공업, 농업, 수산업 계열의 학생들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에서는 공업과 상업계열 학생들이 수산업 계열의 학생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진로에 대한 노력에서는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수산업, 공업계열 학생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사 실업계열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학생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결과와 유사한 보고를 나타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계획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은 진로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진로계획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별과 학교계열에서는 진로계획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식과 마찬가지로 진로계획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진로목표 결정 여부에서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공업계열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공업계열의 학생들보다 진로목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의식과 마찬가지로 진로계획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과 성별은 진로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과 성별과 관계없이 진로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로교육 만족도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가사 실업계열 학생들이 공업, 농업, 상업계열의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농업, 상업계열의 학생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 가사 실업계열의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계획은 취업을 선택한 학생이 188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진학이 89명(23.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취업을 선택한 이유로 188명 중 74명(39.4%)의 학생이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전공 분야로 취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에 188명 중 63명(33.5%)의 학생들은 ‘전공과 공통요소가 있는 직종에 취업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89명 중 37명(41.6%)이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진학 시 대학 유형을 묻는 문항에 89명 중 60명(67.4%)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의 도움 여부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234명(60.5%)이었으며,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50명(13.0%)이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한 문항에 22명(44.0%)의 학생들이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교육만 시행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한 문항에 126명(53.9%)의 학생들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 진로계획은 학년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성별과 학교계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교육 만족도는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학교계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성별과 계열의 특성,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의 내용, 정기적 시행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며 단발성, 일회성에 그치는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무섭·박영숙 (1984).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향자 (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34호].
- 교육부 (20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4호].
- 권미경 (2006).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주 외 (2007). 뇌교육 인정, 한국뇌교육원.
- 김경분 (201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 (2012).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교사의 진로인식 및 진로지도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호 (2008).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비교연구: 상업정보 계열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예 (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선택 만족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환 (2002).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계획과 진로지도개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김혜영 (2003).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문선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 진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성희 (200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별 교육에 따른 진로의식 차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돈 (200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준형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업정보계열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유미 (2001). 중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진로교육연구, 14(1), 41-65.
- 송달용 (2007). 특성화고등학교 평가준거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 (2002).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이수 (2010).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건설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준필 (2000). 특성화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 이무근 외(1975). 농업교육, 박태식 편, 실업과 교육, 서울 : 능력개발사.

- 이보미 (200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의식 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근(1982). 진로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교육개발원.
- 이휘인·김현철(2015).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및 중학생의 특성화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2014 서울교육중단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6), 169-190.
- 임언 외 (2008). 학생과 교사의 내러티브를 통해 본 진로교육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혜진 (2008).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진로지도 의지의 영향요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최영임 (2004).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대화량과 대화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1), 113-114.
- 전우벽 (2004).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숙 (1998).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 (2007). 공업계고등학교와 공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 (2010). 뇌기반 교육의 원리, 학지사.
- 정태화 (2003). 주요국가의 현장지향적 직업교육제도와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 직업교육연구, 22(1), 203-232.
- 조순형 (2007).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수영 (2006).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락 (2003).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편무생 (2015).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에 관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민영 (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교육 비교 연구: 서울지역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tin, A. W. (1994).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5), 615.
- Crites, J. O. & Savickas, M. L. (1996).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131-13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Mckay.
- Hoyt, K. B. (1987). Perceptions of Career Education Supporters Concerning the Current Nature and Status of the Career Education Move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3(3), 5-15.
- Oliver, L. W. & Spokane, A. R. (1988). Career-intervention outcome: What contributes to client gai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47-462.
- Tolbert, E. I.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uffin Co.

[부록]

설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진로교육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자료입니다. 평소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느낀 내용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설문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혜양인적자원개발학과

지도교수 - 박종운

연구자 - 천혜령(010-6689-4686)

1.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공업 ② 농업 ③ 상업 ④ 수산업 ⑤ 가사 실업

4.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5. 진로(직업)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② 경제적 보수 ③ 쾌적한 근무환경
- ④ 청년 보장 ⑤ 복리 후생

6.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잘 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잘 하고 있다. ⑤ 매우 잘 하고 있다.

7. 진로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무엇을 통하여 얻습니까?

- ① 대중매체(TV, 인터넷 등) ② 학교 선생님 ③ 가족 및 친척
- ④ 친구나 선후배 ⑤ 책, 강연

8. 진로(직업)를 선택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 ① 소질과 적성을 잘 모름 ② 미래설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
- ③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④ 현재 경제적 수입정도
- ⑤ 적절한 상담자를 찾지 못함

9.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계획은 어떠합니까?

- ① 취업 ② 대학진학 ③취업과 진학 병행
- ④ 창업 ⑤ 미결정

10. (9번 문항에서 '①취업'을 선택한 경우)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하여 ② 진학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③ 가정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④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서
- ⑤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11. (9번 문항에서 '①취업'을 선택한 경우) 취업을 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전공 분야로 취업하겠습니까?

- ① 반드시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겠다.
- ② 전공과 공통요소가 있는 직종에 취업하겠다.
- ③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하겠다.
- ④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른 분야에 취업하겠다.
- ⑤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기술을 익힌 후 창업하겠다.

12. (9번 문항에서 '②대학진학'을 선택한 경우)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 분야의 심화 교육을 받기 위하여
- ②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 ③ 부모님의 권유와 기대를 따르기 위하여
- ④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 ⑤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13. (9번 문항에서 '②대학진학'을 선택한 경우) 대학진학 시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 ① 4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 ② 4년제 대학 비(非)전공 관련 학과
- ③ 2년제 대학 전공 관련 학과 ④ 2년제 대학 비(非)전공 관련 학과
- ⑤ 사이버대학 전공 관련 학과

14. 진로 결정을 위해 누구와 의논할 계획입니까?

- ① 부모님 ② 가족 및 친척 ③ 학교 선생님
- ④ 본인 스스로 결정 ⑤ 친구나 선후배 ⑥ 기타 ()

15.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 없다. ② 생각해 보았지만, 별 관심 없다.
- ③ 고민 중이다. ④ 어느 정도 생각해 보았다.
- 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생각을 많이 한다.

16.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진로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차이가 없다. ④ 조금 도움이 된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7. (16번 문항에서 '①②'를 선택한 경우) 진로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할까요?

- ① 나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시간 낭비인 것 같다.
- ②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교육만 시행되었다.
- ③ 초빙 강사나 졸업생들은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 ④ 학교보다 학원이나 선배들에게 듣는 정보가 더 유용하다.
- ⑤ 학교 선생님이 하는 진로교육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18. (16번 문항에서 '④⑤'를 선택한 경우) 진로교육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내용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 ① 내 소질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 ② 다양한 강연 및 상담을 통해 나의 진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④ 진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⑤ 창업할 자신이 생겼다.

19. 학교에서 시행되는 진로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0. 진로교육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지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할 때 가장 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소질과 적성 파악 ② 직업의 종류와 조건
- ③ 대학진학 정보 ④ 인성교육 ⑤ 자아개념 형성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